

시설보호아동의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 성차를 중심으로*

김 보 략
서울시립은평병원

이 경 숙[†]
한신대학교

박 진 아
한신아동부모상담연구소

이 지 성
한신대학교

본 연구는 시설보호 아동의 인성과 정서 및 문제행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특히 이러한 차이는 시설보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 소재 시설기관에 거주하고 있는 만 5-6세 아동 80명(남아 47명, 여아 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한국아동인성검사(Korea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KPI-C])와 K-BASC(Korean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인성 특성에 있어 시설보호 남아는 일반가정의 남아에 비해 우울과 과잉행동과 자폐적 성향을 더 많이 보이고 자아탄력성이 더 낮고, 사회적 관계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체화 증상을 덜 보이며 가족관계 지각이 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보호 여아의 경우 일반가정 여아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더 낮고 우울과 정신증 및 자폐적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신체화 증상을 덜 보이며 가족관계 지각이 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의 경우 시설보호 남아는 일반가정 남아에 비해 더 공격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반면, 사회적 기술은 더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보호 여아의 경우 일반가정 여아에 비해 더 공격적인 반면, 불안과 내면화 행동문제는 덜 보이며 사회적 기술이 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아동의 남녀 차를 살펴본 결과, 시설보호 남아는 여아에 비해 오히려 불안과 위축 등 내면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고 사회적 관계에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아는 남아에 비해 신체화 증상과 정신증을 더 많이 보이고 가족관계는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시설보호 아동, 인성, 정서 및 행동문제, 성차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이경숙, 한신대학교,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

Email : debkslee@hs.ac.kr, Tel : 031) 370-6704

아동의 성격발달과 정신건강의 기초가 되는 곳은 가정이다. 특히, 가정 안에서 가족과의 기본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의 정서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부분의 아동은 그들의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양육되어 지고 있지만 최근 가정불화, 부모의 이혼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고 안정된 가정 안에서 성장해야 할 아동들이 가족과 분리되어 국가가 운영하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 증가하고 있다 (노명숙, 2005). 1980년대 이후 국내에서는 입양, 가정위탁과 같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정보호 중심으로 아동복지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시설보호아동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50% 이상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 2004). 이와 같은 가정환경의 변화와 부모와의 관계단절은 시설양육아동으로 하여금 일반아동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함으로 정서·행동발달에 다양한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김현용, 윤현숙, 노혜련, 김연옥, 최균, 이배근, 1997; Vorria, Rutter, Pickles, Wolkind, & Hobsbaum, 1998). 즉 가정환경의 변화는 아동의 정서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울이나 불안, 자아정체감 혼란 등의 정서문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아동의 정서문제는 비행, 공격성의 행동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부모나 가정으로부터 떨어져서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에게 시설은 가정을 대신하는 양육의 장소로 아동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경험한 아동들은 일반가정아동들과는 다른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보일 수 있다 (김현용 외, 1997). 또한 대부분 시설에 입소되는 아동

들은 가정불화, 학대, 유기 등으로 상처를 받아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입소하게 되는데 아동이 생활하는 시설환경은 대규모 집단생활로 정서적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없고, 심리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시설양육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Dalbosco & Hutz, 2000; MacLean, 2003)가 많은데, 시설보호아동의 성격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설보호아동은 일반가정아동보다 학업성취동기, 자아존중감이 더 낮고 (한상경, 1984; 노명숙, 2005), 정서지능도 일반아동보다 떨어져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석주영, 안옥희, 박인전, 2003). 또한 시설보호아동은 일반가정아동보다 상실에 대한 불안감과 우울감,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결핍이 나타나고 (유미숙, 1980; 유미애, 1999), 부모와의 분리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타인과 안정적인 애착형성이 어렵다 (Mash & Wolfe, 1990; 권세은, 2002 재인용). 또한 시설양육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하여 낮은 성취동기와 낮은 자아개념, 부주의, 산만함, 파괴적, 충동적, 고립 등의 성격적 특성을 보이고(유미숙, 1980; 이만중, 1983; 이성환, 1982; 장병림, 1982; 한상경, 1984), 공격성과 비행 등으로 나타나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사회적 미성숙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노혜련, 장정순, 1998), 자기조절 능력이 낮아서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방현주, 2006; 정선옥, 2002). 또한 이들은 입양된 후에도 사회적, 행동적 이상성을 보이고(Fisher, Ames, Chisholm, & Savoie, 1997; O'Connor, Bredenkamp,

Rutter, & the ERA Study Team, 1999),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의 문제를 나타내며(Kreppner, O'Connor, Rutter, Beckett, Castle, & Croft, 2001), 애착 장애(Chisholm, 1998; Chisholm, Carter, Ames, & Morison, 1995; O'Connor et al., 1999)와 자폐와 유사한 증상까지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Rutter, Anderson-Wood, Beckett, Bredenkemp, Castle, & Groothues, 1999). 그렇다면 모든 시설 보호 아동들은 정서적인 어려움과 행동적인 문제를 보이면서 부적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일까? 소수의 연구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최근의 연구에서는 시설보호아동들도 일반가정아동과 비교했을 때 정서적·행동적 문제없이 적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유광수, 2001; 최일경, 1996). 따라서 실제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일반가정양육 아동에 비해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재검증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시설양육아동의 성격 및 문제행동특성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 변인 중에 하나로 아동의 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성차에 대한 이해 없이는 행동문제의 발달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고(Keenan & Shaw, 1997; Zahn-Waxler, 1993; Zoccolillo, 1993), 아동의 성은 성격특성과 문제행동의 표현과 발달경로가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조현춘, 송영혜, 조현재, 2003).

우선, 일반아동 행동문제의 성차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아는 여아에 비해 공격적, 반항적 행동, 과잉행동, 불복종과 같은 문제를 많이 보이는 반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슬픔, 불안, 위축과 같은 정서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되어 왔다(김숙령, 1997; 윤주화, 이

중희, 1999; Fagan, 1990; Lahey, Goodman, Schwab-Stone, Waldman & Bird, 2000). 또한 공격성, 주의집중문제와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많이 보이는데 반하여, 우울, 위축, 부끄러움, 불안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Crijnen, Achenbach, & Verhulst, 1997; Mouton-Simien, McCain, & Kelly, 1997). 마찬가지로 시설양육아동 성격 및 문제행동특성의 성차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미숙(1980)은 보호시설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성격특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남자아동이 여자아동보다 각 요인별 임상척도에서의 차이가 크다고 보고하면서 우리나라의 보호시설이라는 환경적 특성은 여자아동보다 남자아동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보육시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은경, 오수성, 2006), 시설남아의 우울, 불안 문제가 일반남아보다 많고, 시설여아의 비행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유미애, 1999). 그러나 성에 따른 아동의 성격 및 문제행동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선행 연구결과(Achenbach & Edelbrock, 1981; Duncan, Brooks-Gunn, & Klebanov, 1994; Weisz, Suwanlert, Chaiyasit, Weiss, Achenbach, & Walter, 1987)들도 있다. 이상과 같이 성에 따른 연구결과들이 서로 각기 상이한 것을 통해볼 때, 시설양육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에 앞서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의 일환으로 시설양육아동과 일반아동의 성격 및 문제행동특성의 성차에 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성차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연구대상이 초등

학생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연령대를 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정서 및 행동문제의 조기발견과 보다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보다 어린 연령인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이들의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성에 따라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의 차이를 살펴본 뒤, 시설아동의 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시설양육아동의 심리 정서적 건강과 보다 기능적인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시설양육아동과 일반가정양육 아동의 인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 1-1. 시설양육 남아와 일반가정양육 남아의 인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 1-2. 시설양육 여아와 일반가정양육 여아의 인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2. 시설양육아동과 일반가정양육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는 차이가 있는가?
 - 2-1. 시설양육 남아와 일반가정양육 남아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는 차이가 있는가?
 - 2-2. 시설양육 여아와 일반가정양육 여아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는 차이가 있는가?

3. 시설양육아동은 성에 따라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시설양육아동과 일반아동으로 구분되는데, 시설양육아동은 서울 소재 시설기관에 거주하고 있는 만 5-6세 아동 8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일반아동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4-7세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설양육아동의 평균연령은 6.34세로 성별은 남아 47명(58.8%), 여아 33명(41.3%)이고, 시설 입소기간은 5년 미만이 11명(13.7%), 5년 이상 6년 미만이 12명(15.0%), 6년 이상이 57명(71.3%)이었다. 친부모와의 만남이 있는 아동이 5명(6.2%), 만남이 없는 아동이 75명(93.8%)이고, 시설 내 친형제, 자매가 있는 아동이 3명(3.7%), 친형제, 자매가 없는 아동이 77명(96.3%)이었다. 또한 일반아동의 평균연령은 6.03세로 성별은 남아 21명(42%), 여아 29명(58%)이었다. 또한 시설양육 아동의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의 측정을 위해 아동의 담당 보육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특성

변인	구분	시설보호아동 일반가정아동	
		(N=80)	(N=50)
		빈도(%)	빈도(%)
성별	남	47(58.8)	21(42.0)
	여	33(41.2)	29(58.0)
연령	5세	8(14.5)	28(56.0)
	6세	72(85.5)	22(44.0)
입소기간	1년-4년	11(14.2)	
	5년	12(15.3)	
	6년	57(71.5)	

시설기관에서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서 본 연구대상 아동이 입소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대체양육자로서 아동을 지속적으로 양육해왔으므로, 아동의 인성과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대해 신뢰로운 보고를 할 것으로 추측되었다. 일반아동 부모의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80% 이상이 30대 연령, 대졸학력 이상이었으며, 64%가 전업주부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1에 제시하였다.

연구도구

아동의 인성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인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김승태 외(1997)가 제작한 한국 아동인성검사(Korean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KPI-C)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최근 6개월간 아동과 같이 생활한 보호자가 아동의 발달수준, 정서상태, 행동특성, 대인관계 및 현실접촉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아동의 인성을 살펴보는 척도로 총 255문항으로 4개의 타당도 척도와 1개의 자아탄력성 척도, 11개의 임상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임상척도들은 지적발달과 관련된 영역을 측정하는 언어발달척도(VDL)와 동작발달척도(PDL), 정서와 관련된 세 영역 불안척도(ANX), 우울척도(DEP), 신체화척도(SOM), 행동과 관련된 두 영역 비행척도(DLQ), 과잉행동척도(HPR), 정서와 관련된 두 영역 가족관계척도(FAM), 사회관계척도(SOC), 현실 접촉과 관련된 두 영역 정신증척도(Psy), 자폐증척도(AUT)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자는 아동과 관련된 문항을 읽고 아동에게 해당되면 ‘그렇다’에 아니면 ‘아니다’에 답하도록 하여 반응한 문항의 수가 그 척도의 원

점수가 된다. 11개의 임상척도들과 4개의 타당도 척도들은 수치가 높을수록 문제 행동이 나타남을 의미하고, 자아탄력성 척도는 수치가 높을수록 적응능력이 우수함을 나타내고, 낮을수록 적응능력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아동의 행동문제

본 연구에서 아동이 실생활에서 부적응적으로 보이는 다양한 정서 및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Kamphaus와 Reynolds(1992)가 개발한 BASC(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를 이경숙, 신의진, 신동주, 전연진, 박진아(2003)가 번안, 수정하여 타당화한 K-BASC(Korean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이다. 이 도구는 만 2세 6개월에서 18세까지의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행동평가 척도이다. 본 도구는 임상적 척도와 사회적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상적 척도에는 적대적 방법으로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 경향을 측정하는 공격성, 지나치게 활동적인 경향,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과잉행동, 일상 활동 수행의 무력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행, 슬픔, 자살 생각을 측정하는 우울, 실제 또는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불안, 쉽게 산만하고 집중이 어려운 정도를 측정하는 주의집중 문제, 미성숙하거나 이상한 방법 또는 환청, 환각과 같이 정신병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비전형적 문제, 작은 신체문제와 불편감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고 불평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신체증상, 타인을 피하여 사회적 접촉을 회피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위축 등 8개의 하위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적 척도로는 가정, 학교에서 또래 및 성인

표 2. BASC 하위 척도의 문항수와 가능한 점수 범위

척도 유형	행동문제 유형	문항수	점수 범위	
입상척도	외현화 행동문제	공격성	11	0 - 33
		과잉행동	13	0 - 39
		합	24	0 - 72
	내재화 행동문제	우울	10	0 - 30
		불안	11	0 - 33
		신체증상	8	0 - 24
		합	29	0 - 87
	기타 문제	위축	9	0 - 27
		주의집중문제	6	0 - 18
		비전형적 문제	4	0 - 12
적응척도	적응기술	사회적 기술	7	0 - 21
계		79	0 -237	

과 상호작용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측정하는 사회적 기술 척도가 있다. 각 문항은 영유아가 그런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으면, 0점, 가끔 보인다면 1점, 자주 보인다면 2점, 거의 언제나 보인다면 3점을 주는 4점 평정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척도의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BASC의 각 하위 척도별 문항 수와 점수 범위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지능

본 연구에서는 지적기능의 저하로 인한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의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지능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Wechsler(1974)가 개정한 WISC-R(The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Revised)을 한국교육개발원(1991)에서 우리 문화에 맞게 표준화한 아동용 지능검

사인 한국판 아동용 웨슬러 지능검사(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KEDI-WISC)를 심리학 전공의 석사과정생 2명이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시설아동(M=99.7, SD=12.36)과 일반아동(M=117.96, SD=12.66) 모두 경계선 수준인 70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조사는 2005년 8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서울시 소재 아동보호 시설 1곳과 유치원 3곳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었고, 시설양육아동은 아동의 입소 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왔던 대리양육자에게, 일반아동은 부모에게 각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설양육아동과 일반아동의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의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분석에 앞서 시설양육아동과 일반가정양육 아동의 지능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시설보호아동과 일반가정아동 간의 지능에 대한 t검정을 한 결과, 지능의 모든 영역에서 일반가정아동이 시설보호아동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고, 동작성 소검사 중 토막짜기, 모양맞추기, 기호쓰기를 제외한 모든 소

검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시설보호아동은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전체지능 지수($t=-8.120, p<.001$)가 낮게 나타났고, 언어성 지능($t=-10.892, p<.001$)과 동작성 지능($t=-3.329, p<.01$)도 시설보호아동이 일반가정아동보다 낮은 지수를 나타냈다. 또한 시설보호아동은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상식($t=-7.905, p<.001$)과 공통성($t=-10.979, p<.001$), 산수($t=-3.163, p<.01$), 어휘($t=-11.154, p<.001$), 이해($t=-6.206, p<.001$), 빠진곳찾기($t=-4.821, p<.001$), 차례맞추기($t=-7.009, p<.001$) 소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성에 따른 인성과 정

표 3. 시설보호아동과 일반가정아동간의 지능에 대한 t검정

변 인	시설보호아동	일반가정아동	t검정
	(N=80)	(N=50)	
	M(SD)	M(SD)	
전체지능	99.70(12.36)	117.96(12.66)	-8.120***
언어성 지능	94.09(11.45)	117.18(12.25)	-10.892***
동작성 지능	106.24(13.63)	114.50(13.99)	-3.329**
상식	9.78(2.38)	13.64(2.91)	-7.905***
공통성	8.89(2.35)	14.00(2.91)	-10.979***
산수	9.16(2.99)	10.72(2.186)	-3.163**
어휘	8.33(2.27)	13.42(2.91)	-11.154***
이해	8.74(2.83)	11.72(2.38)	-6.206***
빠진곳찾기	9.48(2.22)	11.44(2.33)	-4.821***
차례맞추기	8.94(2.21)	11.72(2.186)	-7.009***
토막짜기	12.24(3.56)	13.10(3.77)	-1.313
모양맞추기	11.95(2.96)	12.46(2.45)	-1.018
기호쓰기	11.14(3.32)	11.28(2.22)	-.293

** $p<.01$, *** $p<.001$

서 및 행동문제의 차이

시설양육아동과 일반아동의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설양육 남아와 일반아동 남아, 그리고 시설양육 여아와 일반아동 여아별로 각각 t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시설양육아동 내에서 성에 따라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우선,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성에 따른 인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시설양육남아의 경우 일반아동 남아에 비해 언어발달($t=2.04, p<.05$), 우울($t=2.59, p<.05$), 과잉행동($t=2.88, p<.01$), 사회관계($t=2.72, p<.01$), 자폐증($t=2.77, p<.01$) 척도 점수가 일반남아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반면, 자아탄력성($t=-5.58, p<.001$), 신체화($t=-2.85, p<.01$), 가족관계($t=4.44, p<.001$) 척도 점수는 일반남아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양육 남아는 일반아동 남아에 비해 언어발달이 지연되어 있으며, 우울과 과잉행동 및 자폐적 특성이 더 높고, 사회적 관계는 더 부적응적임을 의미한다.

반면에 시설양육여아의 경우 일반아동 여아에 비해 우울($t=2.43, p<.05$), 정신증($t=2.28, p<.05$), 자폐증($t=3.22, p<.01$) 척도 점수가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반면, 자아탄력성($t=-4.76, p<.001$), 신체화($t=-2.45, p<.05$), 가족관계($t=-4.81, p<.001$) 척도 점수는 유의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시설양육 여아의 경우 일반아동 여아에 비해 우울, 정신증, 자폐적 특성은 더 높은 반면, 자아탄력성과 신체화 특성이 더 낮고, 가족관계갈등이 오히려 더 적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시설양육아동과 일반가정양육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시설양육 남아의 경우 일반가정양육 남아에 비해 공격성($t=3.76, p<.001$)과 위축($t=2.00, p<.05$)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기술($t=-4.95, p<.001$) 점수는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양육 여아의 경우 일반가정양육 여아에 비해 공격성($t=3.14, p<.001$) 점수가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불안($t=-4.13, p<.001$), 신체화($t=-3.31, p<.01$), 내면화 행동문제($t=-2.90, p<.01$)는 유의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설아동의 성에 따른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의 차이

시설양육아동의 성에 따라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우선 인성의 경우 시설양육남아는 시설양육여아에 비해 불안($t=3.59, p<.01$), 사회관계척도($t=2.40, p<.05$)가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신체화척도($t=-2.02, p<.05$), 가족관계척도($t=-2.86, p<.01$)와 정신증($t=-4.85, p<.001$) 척도 점수는 유의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설양육아동의 성에 따라 정서 및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시설양육아동 남아의 경우에는 시설양육아동 여아에 비해 불안($t=4.72, p<.001$), 위축($t=2.06, p<.05$)과 내면화 행동문제($t=3.36, p<.001$) 점수가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시설양육아동과 일반아동의 성에 따른 정서 및 행동집중의 차이검증

하위영역	시설양육아동		일반아동		#		
	N	M(MD)	N	M(SD)			
자위완력성	남	4747	78.89(19.99)	남	221	55.37(13.53)	-2.52 ***
	여	3333	61.58(62.33)	여	224	56.75(9.15)	-4.76 ***
열연발달	남	4747	72.83(13.44)	남	221	46.24(19.98)	2.92 *
	여	3333	59.21(17.66)	여	224	47.46(19.73)	-4.23 ***
선제화달	남	4747	44.02(11.21)	남	221	44.43(19.39)	-1.69
	여	3333	43.99(13.27)	여	224	43.42(19.38)	-3.51 **
내면화	남	4747	59.06(10.50)	남	221	46.25(11.36)	1.10
	여	3333	41.55(10.37)	여	224	44.88(9.24)	-1.25 **
공격성	남	4747	49.15(12.81)	남	221	40.43(12.80)	2.59 ***
	여	3333	7.47(4.47)	여	224	4.14(2.74)	3.76 ***
신체화	남	4747	45.64(12.13)	남	221	38.46(9.22)	2.43 **
	여	3333	6.15(5.44)	여	224	2.79(2.45)	3.14 **
과잉행동	남	4747	36.89(7.13)	남	221	43.90(10.21)	-2.85 **
	여	3333	10.66(5.68)	여	224	10.62(6.85)	.03
비행외현화	남	4747	39.91(5.73)	남	221	45.13(9.20)	-2.45 *
	여	3333	10.82(6.73)	여	224	10.67(4.83)	.09
과잉행동위축	남	4747	51.89(13.17)	남	221	47.24(7.41)	1.85
	여	3333	18.13(9.10)	여	224	14.76(7.88)	1.47
가족관계주의집중	남	4747	48.30(12.73)	남	221	43.75(7.65)	1.68
	여	3333	16.97(10.20)	여	224	13.46(6.39)	1.49
사회관계비전형적	남	4747	48.28(12.24)	남	221	40.52(9.21)	2.88 **
	여	3333	8.38(3.33)	여	224	6.62(3.43)	2.00 *
정신증	남	4747	44.24(15.88)	남	221	39.38(10.67)	1.38
	여	3333	6.70(3.97)	여	224	7.46(4.49)	-0.68
사회적기술	남	4747	28.77(2.54)	남	221	41.71(13.26)	-4.44 ***
	여	3333	5.87(3.29)	여	224	4.63(2.36)	1.00
자제력	남	4747	30.91(3.74)	남	221	42.29(2.83)	-4.81 ***
	여	3333	5.87(3.29)	여	224	4.63(2.36)	1.00
자제력	남	4747	50.17(10.47)	남	221	43.05(8.70)	2.72 **
	여	3333	42.11(18.61)	여	224	44.08(9.68)	1.59
사회적기술	남	4747	.94(1.20)	남	221	.58(.72)	1.30
	여	3333	31.72(20.60)	여	224	31.48(16.59)	.05
자제력	남	4747	8.40(3.10)	남	221	42.23(3.33)	-4.25 ***
	여	3333	9.79(3.12)	여	224	13.42(2.67)	-4.60 ***
자제력	남	4747	49.21(9.98)	남	221	43.24(7.28)	2.77 **
	여	3333	49.72(11.33)	여	224	41.75(4.90)	3.22 **

* p<.05, ** p<.01, *** p<.001

표 6. 시설양육아동의 성에 따른 인성의 차이검증

변 인	시설보호 남자아동	시설보호 여자아동	t검정
	(N=47)	(N=33)	
	M(SD)	M(SD)	
자아탄력성	38.89(10.99)	41.36(12.33)	-.941
언어발달	47.85(11.44)	50.21(11.66)	-.902
동작발달	44.17(11.21)	43.00(11.27)	.459
불안척도	50.06(10.49)	41.55(10.38)	3.591**
우울척도	49.15(12.81)	45.64(12.13)	1.234
신체화척도	36.89(7.13)	39.90(5.73)	-2.015*
비행척도	51.89(13.17)	48.30(12.73)	1.217
과잉행동척도	48.28(12.24)	44.24(15.88)	1.283
가족관계척도	28.77(2.54)	30.91(3.74)	-2.864**
사회관계척도	50.17(10.47)	44.21(11.61)	2.396*
정신증척도	31.72(20.60)	48.97(10.95)	-4.846***
자폐증척도	49.21(9.98)	49.72(11.33)	-.209

표 7. 시설양육아동의 성에 따른 정서 및 행동문제의 차이검증

변 인	시설보호 남자아동	시설보호 여자아동	t검정
	(N=47)	(N=33)	
	M(SD)	M(SD)	
우울	7.47(4.29)	6.15(3.62)	1.44
불안	7.23(4.43)	3.42(2.77)	4.72***
신체화	2.30(2.58)	1.79(1.73)	1.06
내면화	16.79(7.86)	11.36(5.84)	3.36***
공격성	7.47(4.47)	6.15(5.44)	1.19
과잉행동	10.66(5.68)	10.82(6.73)	-.11
외현화	18.13(9.10)	16.79(10.20)	.53
위축	8.38(3.33)	6.70(3.97)	2.06*
주의집중	5.87(3.29)	5.87(3.29)	.47
비전형적	.91(1.18)	.94(1.20)	-.09
사회적기술	8.40(3.22)	9.79(3.12)	-1.92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시설보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설보호아동과 일반가정아동과의 지능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시설보호아동이나 일반가정아동이나 평균 수준을 보였지만 시설보호아동이 일반가정아동보다 낮은 지능 지수를 보였다. 시설보호아동의 지능 특성을 살펴보면, 언어성지능 지수와 동작성지능 지수를 비교하였을 때 동작성지능 지수가 언어성지능 지수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시설보호아동은 언어성 기술보다는 동작성 기술을 더 잘 이용하며 실용적, 융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언어적 문제해결보다는 시각적 문제해결을 더 효과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룹홈 아동·청소년이 평균 수준의 지적 수준을 나타내고 언어성 IQ보다 동작성 IQ의 높은 점수를 나타낸 이혜진 (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데 시설보호아동은 일반가정아동보다 교육 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언어발달의 지연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예측할 수 있다. 소검사별 점수를 살펴보면 시설보호아동의 모든 소검사 점수는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지적호기심이 약하며, 추상적 사고능력과 논리적 사고능력, 언어이해력·표현력이 떨어지고 청각적 주의집중력과 시각적 주의집중력의 저하, 시각적 예민성, 공간적 구성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시설보호아동의 지능 지수가 일반가정아동과 차이가 나는 이

유는 지능발달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여러 가지 면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시설보호아동이 일반가정아동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가정환경 요소를 보아야 할 것이다. 아동의 지능발달에 미치는 가정환경과 부모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 (정은혜, 2005; 이선주, 2006)을 통해 아동의 지능발달이 가정환경과 부모의 영향에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가정환경과 부모의 영향이 적게 제공되는 시설보호아동은 일반가정아동보다 지능이 덜 발달할 수 있음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계층이 낮으며 욕구만족이 어렵고 발달을 위한 다양한 경험적·환경적 자극이 부족한 결손가정의 경우 지능의 하위 구조가 충분히 발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장영애 (1987)의 연구와 일치하여 부모의 영향과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설보호아동과 일반가정아동과의 인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 시설보호아동이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낮고, 언어발달과 우울, 과잉행동문제와 사회관계문제, 자폐증적 문제를 더 나타내었다. 여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아탄력성이 더 낮고 우울과 정신증 및 자폐적 성향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보호아동이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시설보호아동은 일반가정아동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 조절에 어려움과 적응의 어려움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언어이해를 비롯한 언어적 능력에 문제가 나타나고, 무기력함과 우울한 기분, 활동성저하의 정서문제를 보이며, 충동적이고 공격성

과 반사회적 경향을 나타내면서 일탈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시설보호아동이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과잉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여 학업이나 활동을 할 때 실수를 많이 하고,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는데 어려움을 보이며 산만하고, 또래 관계에서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열등감이나 의존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사고의 문제를 나타낸다. 이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하려는 행동들을 적게 하며 또래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시설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언어발달을 포함한 인지적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연구 (노태화, 1974; 이기춘, 1975; 최나야, 2001)와 일치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언어발달은 좋은 환경에서 자랐거나 부모가 학업적 성취를 강조하는 경우 더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적인 환경이 설정되지 못하는 시설보호아동은 언어발달에 미흡함을 보인다고 밝혔다. 시설보호아동이 일반가정아동보다 우울을 더 느끼는데 이것은 시설아동이 우울 및 행동문제를 더 나타낸다는 연구 (유미숙, 1980)와 일치한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 부족과 애정 결핍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예측할 수 있고, 획일화된 시설 환경 안에서 감정표현의 제한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시설집단이 일반집단보다 비행과 공격성에 문제를 보인다는 연구(노혜련 외, 1998;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 2002)와 일치하는데 이것은 아동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이라는 환경에서 자신의 자율성을 통제 받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공격성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설보호아동이 보이는 사회성문제는 소극적이고 위축

된 태도로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적은 시설보호아동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할 때 극도로 소극적이 되어 표현에 한계를 보이고,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사회성 문제는 시설보호아동이 또래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시설양육아동은 남녀의 성차를 불문하고 일반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들보다 문제적인 행동적 정서적 상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우리사회의 시대적 문제들로 발생하는 버려지는 아기들과 조기 가정해체의 피해자로 자라나는 아동들에 대한 보다 안정된 대체양육의 필요성 또는 시설양육아동들에 대한 조기 전문적 접근 프로그램의 개발을 심리학적으로 조망하게 한다.

한편, 시설보호아동은 남아와 여아 모두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신체화증상과 가족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아동이 시설보호아동에 비해 부정적 신체증상의 징조가 더 자주 나타났다는 성미영(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국아동인성검사 매뉴얼 (김승태 외, 1997)을 통해 보면, 신체화척도는 건강과 관련된 호소를 통해 주의나 전문적인 관심을 얻으려는 시도를 반영한다. 즉, 시설보호아동은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약한 두통과 현기증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며 주의나 관심을 얻으려는 시도를 적게 한다. 이와 같이 시설보호아동이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신체화문제가 덜 나타난 것은 시설보호아동이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신체화 문제에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시설보호아동은 소수의 대체양육자가 다수의 아동들과 생활하는 여건상 직접적인 관

심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일찍부터 양육자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이 발달되지 않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 다른 부분으로는 시설보호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 6세 3개월(5세 8명, 6세 72명)이고 일반가정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 5세 5개월(5세 28명, 6세 22명)로 일반가정아동들이 시설보호아동에 비해 조금 더 어리다. 보통, 연령이 어릴수록 주위 사람 특히 어른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 끌기 행동을 보이는데 일반가정아동들이 이와 같은 행동의 하나로 신체호소를 더 나타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가족관계에 관한 문제가 덜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가족관계척도는 가족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시설보호아동은 가족이 실제 갈등을 겪는 상황이 없고, 보고자도 가족이 아닌 대체양육자이므로 시설보호아동에게 이 척도를 사용한 타당도의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시설아동의 경우 시설양육자와 질적으로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시설아동도 여러 가지 대중매체나 사회적 경험을 통해 개인내적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표상은 이후 시설아동이 성장하여 개인의 가정과 가족관계를 맺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후 질적으로 시설아동의 가족관계에 대한 표상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일반아동과 비교해 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시설양육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시설양육 남아는 일반가정양육 남아에 비해 더 공격적이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더욱 위축되어 있고 사회적 기술도 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양육아동에 대한 사회

적 편견과 관련하여 해석해볼 수 있다. 시설양육 남아의 경우 대인간 관계에서 타협하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사회적 기술능력이 더 낮기 때문에 갈등상황에서 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설양육 남아가 이러한 행동을 보일 때 주변 맥락에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일반가정양육 남아에 비해 더 부정적이고 엄격한 피드백을 부가할 수 있다. 따라서 반복되는 사회적 제한이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시설양육 남아는 심리적으로는 더욱 더 위축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시설양육 여아의 경우에는 일반가정양육 여아에 비해 더 공격적인 동시에 불안과 내면화 행동문제는 덜 보이고 사회적으로는 더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아의 특성에 대한 주양육자의 민감한 반응성과 관련지어 해석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는 심리내적으로 일어나는 불안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에 비해 외부적으로 보다 쉽게 관찰될 수 있다(이경숙 외, 2004). 특히 여아의 경우 불안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는 여아가 원래 기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이해하고 간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양육 여아가 실제로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일반양육아동에 비해 덜 불안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시설의 대리양육자가 외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데다가 여아의 특성으로 이해되는 시설양육 여아의 불안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를 보다 민감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시설양육여아의 경우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공격적 행동 뿐 아니라 내면의 심리적 역동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한편, 시설양육아동 남아와 여아 모두 일반가정양육 아동에 비해 사회적 기술이 미숙하고 더 공격적인 성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양육아동의 심리적 건강증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실제 생활에서 사회적 맥락을 보다 잘 파악하고 갈등 상황에서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대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기술증진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설양육아동의 성에 따라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시설양육 남아가 시설양육 여아에 비해 불안과 위축 등의 내면화 행동문제와 사회적 관계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신체화 증상과 정신증을 더 많이 보이고 가족관계는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남자청소년이 시설여자청소년보다 위축, 신체증상, 우울 및 불안과 비행,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최은경 (2003)의 연구와 부분 일치하지만, 우울 성향이 남자 시설아동과 여자 시설아동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노명숙 (2005)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시설양육 남아의 경우 시설양육 여아에 비해 전반적인 행동적, 정서적 문제가 모두 높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아 특성적 문제로 결론지어왔던 불안, 내면화, 위축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5-6세 남아의 경우 동일 연령대 여아에 비해 사회적 기술능력이 떨어지면서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에 민감하지 못하다. 따라서 시설양육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시설 내외에서 갈등상황이 발생할 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미숙하게 행동하거나 행동문제를 더 보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행동문제로 인해 주변의 부정적 피드백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아는 여아에 비해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한다는 특성을 고려해볼 때, 주변의 부정적 평가가 가중되어 남아의 심리적 문제에 더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설양육아동의 경우 여아보다는 남아의 심리 내적인 측면에서 보일 수 있는 불안과 위축 등의 행동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설아동 여아의 경우 남아보다 더 부정적인 가족관계 표상에 대한 구체적 개입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개입은 향후 여아가 성인이 되어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주체자인 어머니가 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시설보호아동들을 원부모에 의한 양육경험이 없는 아동들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원부모와의 일정 기간 양육 경험이 있는 아동과 양육 경험이 없는 아동간의 차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제안된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대체로 표집수가 적었고, 연령도 5 - 6세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설보호아동의 연구로 일반화 시키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표집수와 다양한 연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아동의 전반적인 정서·행동특성을 밝히는 방법인 양육자 보고 방식의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특히 일반아동의 경우 주양육자인 어머니 보고만을 사용하였다. 따

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조사자가 아동을 직접 관찰하거나 좀 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진행한다면 좀 더 객관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시설아동의 일반적인 정서·행동문제를 살펴보았던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시설아동의 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의 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치료적 접근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초등학교 이상 연령의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 비해 학령전기 시설아동의 지능 및 정서·행동 특성을 밝혔다. 따라서 보다 조기에 효과적인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시설양육아동의 인성과 지능 및 정서·행동특성이 시설양육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문제 해결적 개입과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다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숙령 (1997). 영유아기의 탁아경험과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8(2), 5-18.
- 김승태, 김지혜, 송동호, 이효경, 주영희, 홍창희, 황순택 (1997). 한국아동인성검사 (KPI-C). 서울: 한국가이던스.
- 김현용, 윤현숙, 노혜련, 김연옥, 최균, 이배근 (1997). 현대사회와 아동 - 아동복지의 시각에서 -. 서울: 소화.
- 노혜련, 장정순 (1998). 육아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4, 45-67.
- 방현주 (2006). 시설보호유아와 가정보호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문제행동.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부 (2004). 보건복지백서.
- 성미영 (2006). 시설보호 여부에 따른 아동의 정서성 발달과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 문제. 한국생활과학회지, 17-29.
- 유미숙 (1980). 보호시설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성격 특성의 비교: MMPI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미애 (1999). 일반아동과 시설보호아동의 정신건강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주화, 이종희 (1999).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보육교사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171-186.
- 이경숙, 신의진, 신동주, 전연진, 박진아 (2003). 한국판 영유아 행동문제 평가척도 (Korean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K-BASC)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175-191.
-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한국 유아 행동문제의 경향과 특성: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4), 53-73.
- 이만중 (1983). 고아학생과 일반학생의 성취동기 및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성한 (1982). 시설아동의 성격 및 창의성에 관

- 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병림 (1982). 아동심리학. 서울: 법문사.
- 정선욱 (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현춘, 송영혜, 조현재 (2003). 아동이상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최은경, 오수성 (2006). 보육시설 청소년의 애착유형에 따른 행동문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129-145.
- 한상경 (1984). 정상집단, 소년원집단, 고아원 집단간의 인성특성 및 자아개념의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1). Behavioral problems and competencies reported by parents of normal and disturbed children aged 4 through 16.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6, 1-82.
- Chisholm, K. (1998). A three year follow-up of attachment and indiscriminate friendliness in children adopted from Romanian orphanages. *Child Development*, 69, 1092-1106.
- Chisholm, K., Carter, M. C., Ames, E. W., & Morison, S. J. (1995). Attachment security and indiscriminately friendly behavior in children adopted from Romanian orphanag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283-294.
- Crijnen, A. M., Achenbach, T. M., & Verhulst, F. C. (1997). Comparisons of problems reported by parents of children in 12 cultures: Total problem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 1269-1277.
- Duncan, G. J., Brooks-Gunn, J., & Klebanov, P. K. (1994).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5, 296-318.
- Fagan, J. (1990). The intervention between child sex and temperament in predicting behavior problem of preschool-age child in day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59, 2-12.
- Fisher, L., Ames, E. W., Chisholm, K., & Savoie, L. (1997). Problems reported by parents of Romanian orphans adopted to British Columbi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0, 67-82.
- Keenan, K., & Shaw, D. (1997). Developmental and social influences on young girls' early problem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21, 95-113.
- Kreppner, J. M., O'Connor, T. G., Rutter, M., Beckett, C., Castle, J., & Croft, C. (2001). Can inattention/overactivity be an institutional deprivation syndrom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 513-528.
- Lahey, B. B., Goodman, S. H., Schwab-Stone, M., Waldman, I. D., & Bird, H. (2000).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oppositional behavior and conduct problems: A cross-sectional household study of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488-503.
- Mouton-Simien, P., McCain, A. P., & Kelly, M. L. (1997). The development of the toddler behavior screening inventor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 59-64.

- O'Connor, T. G., Bredenkamp, D., Rutter, M., & the English and Romanian Adoption Adoptees Study Team. (1999). Attachment disturbances and disorders in children exposed to early severe deprivatio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0, 10-29.
- Rutter, M., Anderson-Wood, L., Beckett, C., Bredenkamp, D., Castle, J., & Groothues, C. (1999). Quasi-autistic patterns following severe early global priva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0, 537-549.
- Vorria, P., Rutter, M., Pickles, A., Wolkind, S., & Hobsbaum, A. (1998). A comparative study of Greek children in long-term residential group care and in tow-parent families: I. Social, emotional, and behavioral differences.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9, 225-236.
- Weisz, J. R., Suwanlert, S., Chaiyasit, W., Weiss, B., Achenbach, T. M., & Walter, B. R. (1987). Epidemiology of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among Thai and American children: Parent reports for age 6 to 11. *Journal of American Academic Child Psychiatry*, 26, 890-897.
- Zahn-Waxler, C. (1993). Warriors and worriers: Gender and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79-89.
- Zoccolillo, M. (1993).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conduct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65-78.
- 1차 원고접수: 2008. 02. 26
심사통과접수: 2008. 03. 10
최종원고접수: 2008. 03. 23

The Emotional-Behavioral Characters and Behavior Problems in Institutionalized Care Children: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Boram Kim

Enpung Hospital

Kyung-Sook Lee

Hanshin University

Jin-Ah Park

Hanshin Child &
Parent Counseling Institute

Ji-Soung Lee

Hanshi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institutional children's psychological features as comparing institutional care children with normal children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The subjects were 80 institutionalized children(47 boys, 33 girls) aged from 5 to 6 years old. Emotional-behavioral character was assessed by K-PIC(Korea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Kim et. al., 1997) and behavior problems were assessed by K-BASC(Korean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Lee et. al., 2003). Results show that boys in institutional care were more depressive, hyperactive, aggressive, less ego-resilient and showed more autistic features than those in a general environment. Girls in institutional care were more depressive, aggressive and showed more autistic features and psychiatric problems than those in a general environment. Boys in institutional care showed more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han girls in institutional care.

Key words : Institutional children, Emotional-Behavioral Character, Behavior Problems, Gender Differences